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보건 단체의 홍보활동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세미나 발표 (제 3 회)



이 관 영

2. 대한결핵협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사람들의
결핵에 대한 지식은
걸리면 결국에는 죽
게 되고 쉽게 전염되
기 때문에 완전히 격
리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통념이

었다. 또한 의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사회·
경제적 여건의 낙후로 치료율의 절대적 부
족,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치료나 예방
이 부진한 실정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
과 예방을 위한 생활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것, 그리고 치료를 위한 시설, 약 등을 충
분히 확보하는 것이었다.

결핵협회는 결핵을 치료함과 동시에 국
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
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결핵은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매년
결핵예방주간 행사를 실시해 결핵예방과
지식 보급에 주력하고 월간지 보건세계와
각종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드라마 방영을 매년 수회 실시해 왔
다.

그외에 복잡자사업을 벌여 매년 크리스
마스 쉴을 제작·판매하여 결핵환자의 치
료와 홍보활동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시범 국민학교를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의 결과, 50년대 초 사망
율이 1위를 기록하던 것이 79년에는 6위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국민의 의식수준 역시, 결핵이 정기적 검사와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가 불필요하다는 정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유병율 역시 60년대 5.1%에서 75년 3.3%, 85년 2.5%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3. 대한나관리협회

우리나라 나병관리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정부의 나관리시책에 의거하여 조기에 나병을 근절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관리협회는 나병에 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를 통하여 나환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계몽활동과 나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 10개의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부에 복지상담실 및 진료상담실을 설치해 나병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협은 나환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 '복지'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나병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강연회나 기타 비디오·슬라이드 등을 통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단체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협회나 기타 여러 사회보건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각 사회보건단체는 국민보건증진 및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목적·활동조건·전략 등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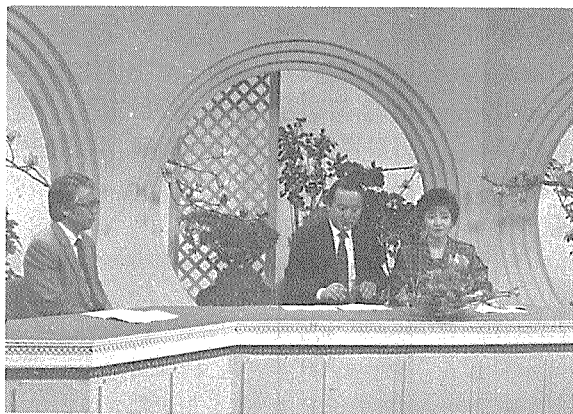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보건교육의 가능 단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V. 건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사회 보건단체의 홍보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로 하는 질환, 즉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동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사는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 1965년에는 전국 11개 시·도에 지부를 설치했고, 1966년에는 기생충질환예방법이 공포되어 건강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4년에는 아세아 기생충관리기구(A. P. C. O.)회의에 가입하여 국제교류사업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1982년에는 대구·인천지부를 설치해 총 13개 시·도지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감소되어가는 기생충 감염율과,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성인병의 추세에 따라 국민보건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 사회보건단체는 국민 보건증진 및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조건, 전략 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설립하였다.

1986년 11월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기업이 흡수·통합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생충관리 뿐만이 아니라 새로이 대두되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건협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건강검사사업이다.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져온 비전염성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80년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병 실태조사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망원인의 비율에서 뇌혈관질환이 14.8%, 암(악성신생물)이 10.7%, 고혈압이 8.6% 간질환이 3.8%, 간염이 3.1% 등인 것으로 나타나 현대에 있어서의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성인병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건협에서는 이러한 실태에 있는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기초검사,

노화학적검사, 혈액학검사, 생화학검사, 혈청학검사, 세포학검사, 호흡기능검사, X-RAY검사 등을 통하여 각종 염증성질환, 신장질환, 간장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간염, 자궁경부암, 폐기능 및 질환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검사는 내원, 혹은 집단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회에서 받는 검사는 각 대학병원 등의 전문의의 판독에 따라 그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다.

둘째는 기생충검사사업이다. 60년대 초 전체 국민의 80%이상의 감염율을 나타낼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기생충의 박멸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는 10%내외로 감염율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기생충의 년차적 목표량을 줄이면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감염이나 역상승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생충검사는 학생·일반주민·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생충검사는 특히 근래에 와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토마나 특수기생충, 요충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스토마나 특수기생충 검사 및 관리,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요충검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세제는 조사연구사업이다. 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71년 이래 매 5년마다 전국장대기생충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해 각종 통계자료 및 기생충관리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디스토마 감염율조사, 환경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종합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사업무의 적극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의들을 위원으로 하는 각종 전문위원회를 두어, 본회 검사사업의 정도관리 및 개선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넷째는 보건계몽사업이다. 기생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 일반주민이나 보건관계자들의 대상으로 강연회·좌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질환에 관한 이해와 건강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월간지 '건강소식'과 계몽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매스콤을 지역이나 대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외에 반회보나 기타 유인물, 비디오, 슬라이드 등을 제작·활용하여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홍보·계몽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협에서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교류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견 교환에도 힘쓰고 있다.

(계속)

〈필자=건협 사무총장〉

생활상식

식생활정보

▲ 굳어진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아무리 맛있는 빵이라도 굳어지면 처음과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없다.

이럴때 빵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막 구워낸 빵처럼 손질할 수도 있다.

빵을 형겅이나 타월로 싸서 솔이나 짚통에 넣고 2~3분정도 열을 가하면 부드럽고 향기도 새로워진다.

▲ 청결한 주방환경을 유지하려면=집안 오염의 주범인 곤충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부엌에 음식물을 개방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모두 뚜껑을 덮고 싱크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또 그릇에 묻은 사람의 손때는 벌레에게는 영양분이므로 잘 닦아두어 깨끗한 부엌을 만들자.